



통권 제14호

우송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뉴스레터

안녕

An-nyeong

2011 June

교수 수필

- 한국어교육원 교수 윤남희

안녕 NEWS

- 1년 4학기제 우송대학교

안녕 INTERVIEW

- 국제경영 유 평
-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왕 념
- 졸업생 이말연

안녕 in Campus

느낌과 생각

안녕 INFO

- Global 동호회 개설
- 외국인 취업팀 개설 운영

안녕 LETTER



2011 June

통권 제14호

CONTENTS

- P 3 교수 수필
- P 4 안녕 NEWS
- P 6 안녕 INTERVIEW
- P11 안녕 in Campus
- P13 느낌과 생각
- P20 안녕 INFO
- P21 안녕 LETTER



- 발행인 이근태
- 편집지도교수 이주리
- 편집인 전연희
- 편집장 심양
- 편집위원 고징강, 응몽몽, 김로안, 조약계
- 발행일 2011. 06. 03



한국어교육원 교수 **윤남희**

“인생의 막바지에서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원했으나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후회한다. 어제라는 것은 이미 써 버린 지폐이고, 내일은 아직 발행되지 않은 채권이며, 오늘만이 우리 손에 쥐어진 현금인 셈이다.” 내가 좋아하는 비전 멘토 ‘강현구’ 선생님의 말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라는 쓴 맛을 보았을 때, 손가락 하나도 까닥하기 힘들 정도로 지치고 힘들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미래 때문에 번뇌의 시간을 보낼 때 . . . 이 글은 시원한 생수처럼 ‘현재’라는 선물에 다시금 충실하게 한다.

누구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재’라는 시간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꿈을 이룬 뒤 있을 달콤함에 매료되어 ‘미래’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는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고 있는 소망일 뿐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놓치면 설령 자신의 꿈을 이룬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힘들다.

하여, 현재라는 녀석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 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 녀석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결코 기다려 주지도, 되돌아오지도 않는다. 또 충실하면 할수록 새로운 설렘과 기대로 갠아 주기도 한다. 매일 맞는 현재의 숲에는 켜켜이 서 있는 나무도 있고 꿈적할 것 같지 않는 커다란 바위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을 위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간간이 코끝을 맴도는 바람 냄새도 맡아 보고, 들뜬에도 미소를 보내 보자.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 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해 보자.

이미 우리 손안에는 현재라는 마법의 돌이 쥐어져 있으니 말이다.

1년 4학기 공부하는 대학

2가 관습이라면 4는 혁신이다!



1년 4학기제 우송대학교

국내 최초 1년 4학기로 앞서가는 우송대학교

우송대학교는 2010년부터 글로벌 인재, 전문적 인재,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1년 4학기제를 도입하여 연간 30주 수업에서 42주로 확대 운영하고 각종 학력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및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을 통해 취업률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학기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보충 학습하여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어 매개어 교실운영

우송한국어교육원에서는 유학생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생겼을 때 중국어가 가능한 선생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어 매개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전공 과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학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송 교내 인턴 아카데미

우송대학교는 글로벌 행정의 기초인 외국어교육 및 전문행정 스킬과 주도적 리더십 비즈니스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어를 집중 교육함으로써 직장 내에서 배워야 할 기본 예의 및 업무 수행능력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1코스에서 3코스까지의 체계화 된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교내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 보조 및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유학생 한국어도우미제도

유학생들 스스로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는 한국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배배들이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여 한국어 학습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실력을 향상시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공인 인정 5급 이상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과 만나 일주일에 6시간씩 공부한다. 한국어는 물론 전공과 한국 생활 및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 전반의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다.



나도 선생님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내 꿈이었다. 집에서 항상 인형을 상대로 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꿈이 흐려지는가 싶었는데 이번 학기에 한국어 도우미 활동에 참가하면서 작은 내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 처음에는 이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배운 지 4년이 지났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웬만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 수업에 많은 준비도 없이 의기양양하게 칠판 앞에 서서 발음 수업을 했다. 학생이 '발다'를 어떻게 읽느냐고 물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사실 정확한 발음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척 하면 창피할까 봐 생각나는 대로 '발따'라고 대답했다. 수업을 마치고 찾아 본 정확한 발음은 '밥:따'였다.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자만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혼났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낼 때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지도 방법 및 교수

로서의 기본자세 등을 조언해 주신다. "너는 이제 선생님이야, 선생님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고 이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과거에 내가 공부했던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의 쉬운 이해를 위해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한국어 선생님들의 조언도 받고 친구와 토론도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한다. 그동안 많은 시간 투자에 힘들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배운 것이 많다. 선생님이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나랑 공부한 학생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뿌듯하고 고맙다. 이런 만족감을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학교에도 감사하고 많은 신경을 써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Woosong Global Forum

The 2011 East Asian Student Global Forum

나의 3박 4일

우송대학교는 2011년 1월 19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솔브릿지국제대학에서 2011 동아시아 학생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우송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KAIST 한국 4개 대학과 북경외대, 대만 사범대 등 중국 11개 대학, 와세다대 등 일본 14개 대학, 6개 고교에서 135명이 참가하였다. 나를 비롯한 유학생 3명이 영광스러운 참가의 기회를 얻어 학교 대표로 이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차세대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21세기에 필요한 국제적 리더십을 익히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놓고 조별 토론을 실시하였다.

우리 그룹은 모두 8명으로 구성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서먹서먹하였지만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우리들은 이야깃거리가 많아졌고, 다국적 멤버였지만 언어는 결코 우리 상호간의 교류에 장벽이 되지 못했다. 우리 그룹의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였다. 처음에 우리들은 주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없는 의견 제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토론의 주제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 쉬는 시간에는 자주 농담도 했다. “저기 봐, 일본에서 온 학생이 멋있고 잘 생겼지.” “NO, NO, NO, 우리 팀장님이 더 멋있어, 코도 높고 피부도 촉촉하고 완전 꽃미남이야... 크크크...” 즐거운 웃음이 만발하는 가운데 아쉬운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마지막 날, 우리 팀의 발표를 끝으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많은 토론과 준비로 발표하는 우리 팀은 그 순간만큼은 눈부신 스타가 된 것 같았다.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가서 더 친해질 수 있었고 많은 추억거리도 만들었다.

3박 4일 동안 모든 진행과 토론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대단치 않은 영어 실력이었지만 이 행사에 참가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내 자신이 대견했고 이 기회를 주신 학교 측에 감사한다. 헤어지는 아쉬움의 눈물과 친구가 된 기쁨의 웃음으로 보낸 친구들이여!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제경영학과 유 평



베트남 연수를 다녀와서...

한국언어문화전공 왕녕

우송대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입상자 12명은 지난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8박 9일 동안 베트남에 있는 4개 대학을 방문하여 우송대가 파견한 한국어, 한국문화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왔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한국 홍보 동영상, 한복, 한국어 교재를 준비했고 한국 노래와 춤 등을 연습해서 베트남으로 떠났다.

호치민 경제대학교, NTT대학교, 빈중대학교, 도이뚏대학교를 방문했다. 우리는 4개 대학을 방문하면서 베트남 학생들의 뜨거운 환영과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았다. 한국어 교재도 기증했고 한복을 직접 입고 한복의 의미를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으며 직접 입혀 주기도 했다. 학생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을 직접 입어 볼 수 있어서 좋아했고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 같았다.

학교 방문을 마치고 우리들은 베트남 문화 체험도 했다. 구찌 터널과 전쟁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과거에는 있었지만 미래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으며 베트남 현지 생활상도 많이 보고 느끼고 돌아왔다.

나는 이번 베트남 연수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어와 한국이 더 좋아졌고 한국을 알게 된 것에 자긍심과 뿌듯함까지 생겼다. 친구들은 다 같이 협동해야만 이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협동하고 배려함으로써 한국의 공동체 문화의 힘과 협동의 즐거움을 배웠다고 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한국의 문화와 정치, 경제를 배우려는 움직임도 빠른 것 같았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한국 유수의 기업체들과 상가들을 보면서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이 있는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곧 한국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세계가 공존하면서 상호 발전하고 있는 것이리라!





한국의 독특한 음식 - "마력 비빔밥"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미래 TV홈쇼핑 쇼호스트 오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바로 요즘 인기 대박 상품 '마력 비빔밥'입니다.

마력 비빔밥이 시장에 나온 지 3시간 만에 매진 되어서 전 세계의 핫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 이런 좋은 상품을 사지 못한 분들들을 위하여 특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기대 되시죠?

저도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자, 우리 미래상사가 출시한 새로운 마력 비빔밥입니다.

첫째 상품은 바로 "노력 비빔밥"입니다.

김연아가 흘린 땀과 눈물,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경제, 발레리나 강수진.

이것은 모두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 노력 비빔밥을 드시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품은 "화합 비빔밥"입니다.

왕따, no! 싸움, 싫어! 전쟁, 안 돼! 2002한일 월드컵에서 보여 준 붉은 악마들의 응원소리, 이에 힘입은 월드컵 4강 진출. 이것은 다 화합 비빔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기 드시면 정이 샘솟는 화합 비빔밥이 있으니까요.

오~케이, 오늘 마지막 상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한글 비빔밥"입니다.

한국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 텐데요. 그래서 미래상사가 한글 비빔밥을 주력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한글 비빔밥의 중요한 재료입니다. 한글 비빔밥을 드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지금 마력 비빔밥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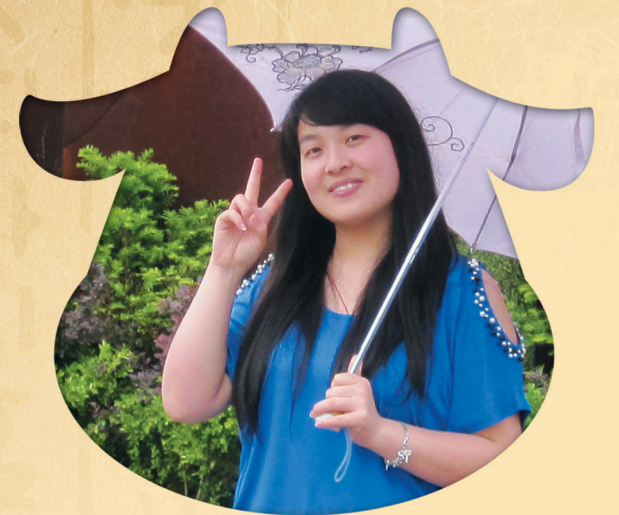
전화번호는 042-629-6698입니다. 당신 고민의 해결사--"마력 비빔밥"입니다.

지금까지 미래 TV홈쇼핑 쇼호스트 오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경영학과 오 소

◉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우수상 수상

2011년 5월 13일, 경희대학교 주최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국제경영학과 4학년 오소 학생이 <마력 비빔밥>이라는 제목으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50대 1의 예선전을 뚫고 한국 음식과 문화를 사랑하게 된 경험담을 소개하겠다고 무대에 섰다. 전통 한복을 입고 비빔밥을 소재로 한국 문화를 소개했는데, 홈쇼핑을 따라하는 재치를 발휘했다는 많은 대중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다.



'위낭소리'를 보고

어느 시골, 마을 구수한 사투리가 정겨운 노부부에게는 평생을 함께 한 늙은 소 한 마리가 있다. 비록 늙고 쇠약했지만 그는 최고의 농기구이고, 그가 끄는 수레는 최고의 자가용이다.

할아버지는 현대화된 농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소를 이용해 밭을 갈고 농약을 치지 않고 청정한 자연을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힘이 부족하다. 전신이 다 아프고 귀까지 멀었다. 그렇지만 소가 흔드는 위낭 소리는 잘 듣는다. 소의 생각도 읽는다. 소가 좋아하는 최고의 먹이를 손수 준비하고 챙겨준다. 또 그 소는 그런 노인을 위해 묵묵히 일한다. 너무 늙어서 걸을 힘조차 없으면서 말이다. 30년을 같이 한 소가 너무 늙어 팔려고 해도 값이 없다. 그러나 노인에게는 그 어느 소보다 귀중하고 값 비싼 존재다. 그래서 절대로 팔지 않았다. 고난과 역경을 함께 해 온 반려자요, 동반자이기 때문이었다.

소와 할아버지는 '이심전심'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통했다.

결국 소는 평생을 꿰었던 코뚜레를 노인이 직접 풀어 주고서야 한 방울의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곁에서 생을 마감했다. 수레를 끌 힘도 없었지만 아주 천천히 사력을 다해 노부부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땀감을 실어다 주고 말이다.

따뜻한 봄날, 개나리 진달래가 피는 언덕에 할아버지 혼자서 앉아 계신다. 친구가 없는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공산에 홀로 우는 꿩소리만 처량하다.

이 영화를 보고 받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중국도 예전의 농촌 정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의 농촌 정서를 간접적으로 느낀 계기가 되었다. 우직한 소의 믿음은 한국의 대표적인 정(情)이며 정서가 아닐까 한다.

이 영화는 연기를 잘 하는 배우가 출연한 것도 아니고 길들여진 소가 출연한 것도 아니다.

다만, 5년간의 기획과 3년간의 촬영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변화와 속도, 편리함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느릿느릿 걸어와 잔잔한 감동을 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기숙사에 돌아와서도 영화 속의 장면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도 '딸랑딸랑' 위낭소리가 내 귓가를 맴도는 것은 왜일까?

국제경영학과 장 빙 청



새로운 세상에서 찾은 더 넓은 꿈!
꿈꾸는 자들의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송대학교를 2008년 12월 졸업한 컴퓨터디자인학과 이말연입니다. 졸업한 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는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저의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학창시절이 생각나고 저를 도와주신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꼭 찾아 뵙겠습니다.

졸업 후에 중국에 돌아오니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이제 인생의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자신감을 버리지 말고 끊임 없이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절망도 겪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좀 바뀌었습니다. 고난과 절망을 만나더라도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남경시 청소년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청소년에 관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동료 사이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처음에 다른 선생님이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와! 내가 선생님이 되었구나"라고 마음속으로 감복하고 있었지만 선생님이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된 것이 무척 행복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의 끝이 보이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사십시오.

간간이 친구들과 연락을 해서 우송대학교의 소식을 들곤 합니다. 참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복리 시설도 좋아지고 학생들을 참 많이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학교의 자랑스러운 훈날 학교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교수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후배들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하루 하루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연 드림



◎ 합심의 함성으로 즐거운 "우송체육제" 개최

5월 12일(목)과 13일(금) 양일 간 우송대학교 서캠퍼스에서 우송이 하나 되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열렸다. 이 날 유학생 대표 팀은 농구, 줄넘기, 5인 6각, 줄다리기, 1000M계주에 참가하여 열띤 응원 속에 젊음의 패기를 발산하였으며 농구에서 유학생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 2011 우송한국어교육원 겨울 문화캠프 열려

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우송한국어교육원 1기 문화캠프가 열렸다. 이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과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에 와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기에서는 대만 정의대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한국어는 물론 한복체험, 예절, 다도체험, 태권도, 한국음식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였으며 스케이트장과 스키장에서 한국의 겨울 낭만을 즐기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상도 체험하였으며 인삼의 고장 금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인삼을 직접 보고 느끼는 등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능력평가 실시

우송 한국어교육원에서는 5월 3일 (화) 한국 체류기간 1년 미만 유학생을 대상으로 W-TOPIK 고사를 시행하였다.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 프로그램에 활용하며 한국어 실력이 월등한 학생에게는 한국 문화 체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 특별반 운영

한국어교육원에서는 매 학기마다 유학생들에게 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 전에 특별반을 개설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시험 전 주말을 이용하여 TOPIK과 KLPT 기출문제를 다루어 봄으로써 시험에 대한 다소의 긴장감도 해소 하였고 자신감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 2011학년도 우송대학교Global 문화행사 ▽ 한국문화탐방행사 열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이 함께 어울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학기 중 격주로 토요일에 운영되어 학업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한국을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 ▶ 3월 26일 : 한산모사마을 ▶ 4월 9일 : 서울시티투어 ▶ 4월 23일 : 에버랜드 ▶ 5월 7일 : 한국민속촌 ▶ 5월 21일 : 서울대공원

◎ 제 5회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우송대학교는 제 5회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경시대회를 개최하였고 외국 유학생에게는 한국어 시험과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열어 15명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한국문화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W-TOPIK 수상자

순번	소속	성명	학년
1	영어학과	Jin Long	3
2	국제경영	GAO YA	4
3	국제경영	YANG FAN	4
4	국제경영	WANG XIN	4
5	건축학과	Gao Shan	2

프레젠테이션 수상자

순번	소속	성명	학년	발표주제
1	철도경영	GU CHENG QIANG	4	Sol-인재 리세기가 원한다.
	호텔외식경영	Hang Jun	4	
2	철도경영	WANG KUN	4	우송인, 미래의 훌륭한 인재들
	철도전기·정보통신	TAO YU TING	4	
3	국제경영	Wu Xiao	4	다문화 이해
	International Business	Tumentsetseg Yadamshuren	2	
4	국제경영	LIANG YI FU	4	한국을 알고 세계를 알려고요.
	국제경영	LI XIAO TENG	4	
	국제경영	TANG LIN	4	
5	International Business	Thi Bich Phuy Do	2	글로벌 우송인

한국에서 얻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베크조드 (솔브릿지 국제대학 MBA-국제경영)

나의 유학생생활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미래의 직업도 한국과 관계가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생이 되어 인상에 남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많이 있고 바다도 가까워서 언제든지 찾아가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 본 곳 중에서 남이섬과 백제 고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제 고분에 가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으며 남이섬에서 가을의 고운 자연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배려로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생활의 불편한 것은 모두가 느끼는 것, 음식과 고향에 대한 향수였습니다. 맵고 뜨거운 것을 못 먹던 제가 한국음식에 적응하기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국사람이 다 되어서 뭐든지 잘 먹습니다. 게다가 자주 못 먹던 좋아하는 해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함께 오순도순 살다가 혼자 떨어져 있으려니 처음에는 향수병에 걸려서 무척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의 유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다보니 차츰 위안이 되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 완벽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유학 생활 동안 배울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들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은 할 만합니다.



“한국의 김치! 대단해요”

조욱영 (우송정보대학교 샵마스터 경영계열 경영전공)

기대와 설렘으로 밟은 한국 땅! 다 같이 사람이 사는 곳인데 다르면 얼마나 다를까? 텔레비전과 책에서 보는 모습과 같을까? 참 많이도 궁금했었다.

막 왔을 때는 적응하기에 바빴고 지금은 공부에 바쁘다. 외국인이 보기에 많이 다른 것이 밥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밥이 없이 반찬만 있어도 식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한국은 밥만 있어도 한 끼 식사가 해결될 정도이다.

특히 매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김치에 대해 알고부터 김치의 과학성에 놀랐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만드는 김장에는 비타민, 아미노산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으며 암을 예방하는 물질도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한 번 만들어 1년을 먹어도 괜찮다고 한다. 그래서 김치 보관 전용의 '김치냉장고'가 있을 정도다.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 본 김치는 절대로 내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었다. 싫어하는 반찬이 매일 보여서 싫었지만 이제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김치 만두를 좋아한다. 또 한국 사람처럼 라면을 먹을 때는 꼭 김치하고 먹는다. 주말이면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를 넣어 끓인 김치찌개를 자주 먹는다. 머지않아 김치가 세계의 음식이 될지도 모르겠다.



봄비 소리를 들으며



고 명

국제경영학부
금융전공

자연이 새롭게 깨어나는 봄이 왔다. 그런데 목마르다.
나는 창가에 앉아 비를 기다리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본다.
잠시 후, 한 무리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아! 비가 오겠구나!...
나는 빗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
악보도 없지만 해맑은 선율이 대지 위에서 춤춘다.
술술술...후두둑 후두둑... 푹푹
박자를 맞추어 주는 이 없어도 혼자서 연주를 잘 한다.
나는 비 소리에 이끌려 우산을 들고 무대로 나가
함께 어울려 논다.
봄비는 삼라만상에 생명을 준다. 아낌없는 희생이다.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동안 더러웠던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휴식을 취하게 해 준다.
마음속의 번뇌는 홍수가 되어 다 떠나려간다.
생명수는 부모님이요 선생님이요 친구이다.
비가 그치고 그가 스케치한 자연은 더없이 아름답다.
일곱 색깔 무지개가 피었다. 내 마음도 따라 웃는다.



도우정

철도전기시스템
학과

후회없는 유학생할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되었다. 세월이 쏠살같이 지나간 것 같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여러 나라 학생들과 같은 건물에서 사는 것도 신기했고 학교에서 재미있게 최대한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부모님 곁을 떠나 타국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화면으로만 볼 수 있을 뿐 쉽게 만날 수도 없다. 몸이 아플 때 그동안 부모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을 때를 생각하면 코끝이 찡해져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나를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참아 낼 것이다. 마음이 적적할 때면 다행히 따뜻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위로를 받고 잘 지내고 있다. 친한 언니에게 유학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난 여기 와서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꿈꾸던 것도 이룰 수 있어서 후회하지 않아” 라고 하였다. 지금의 나도 같은 마음이다. 똑같은 유학을 선택했지만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선택한 이상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1년 남은 유학 생활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즐겁게 지낼 것이다.

저는 지금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생생한국어 시간에 태권도를 배워 보셨죠? 태권도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계속 배우고 있어요.

태권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 무술이에요. 기본 기술로는 발차기와 주먹 지르기가 많이 쓰이고, 동작이 빠른 편이에요. 태권도를 할 때는 하얀 도복을 입고 색깔 있는 띠를 매요. 띠의 색깔은 사람들의 실력에 따라 달라요. 띠 색깔 순서는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이에요. 저는 까만 띠인 일단이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범님’이라고 불러요. 언제나 사범님이나 선배들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해요.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그리고 태권도 정신은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에요.

저는 우리가 태권도 수업을 했던 도장을 매일매일 다니면서 태권도를 배워요. 그 도장에는 유학생이 저 혼자뿐이에요. 한국 친구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줘요. 관장님도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그리고 유학생이라고 학원비도 받지 않으시고 새로운 도복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해요. 지금 태권도장에 다니는 것이 훗날 제 유학생활 중 가장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태권도를 배우다 보면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맑고 건전한 정신을 수련할 수 있고 올바른 예의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를 만들어 배워 보세요.



당 림

국제경영학과

다행이다

내가 고 3이 되던 해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다. 고 3이라는 스트레스도 없이 공부가 싫어서 항상 수업 시간에는 조느라고 수업을 듣는 등 마는 등 집중하지 못했다. 숙제는 남의 것을 베껴거나 답안지를 보고 쓰기도 했다. 집에서는 채팅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연습과 복습은 뒷전이였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 학교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 강사 강연 중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면 꼭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 왔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유명한 강사가 된 것을 보고 나는 깨달았다. “나도 저 분처럼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내 생활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 후부터 나는 게임하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고 나 스스로도 행복해졌다. 만일 공부가 싫어서 포기했다면 나는 지금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것이며 대학생들의 즐거움과 유학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책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는 즐거움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이웃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다행이다!** 좋은 인연을 만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어서...



이 비

국제경영학과

한국 문화탐방 에버랜드



필수혜

뷰티디자인학과

얼마 전 친구들과 같이 에버랜드에 갔다왔다. 가기 전에 우리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꼭 많이 타보고 오자고 했다. 그 생각은 우리를 흥분시켰다. 왜냐하면 타 본적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다. 에버랜드로 가는 2시간 동안 도로변에 만개한 벚꽃들을 보며 참 평화롭구나! 그 속의 나는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버랜드는 생각보다 넓었고 사람도 많았다. 이국적인 조형물들은 별천지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대학생이 된 지금의 나에게

잠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마음껏 즐길 수 있기에 충분했다. 여기저기 다니며 마음껏 놀고 추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한참이나 기다려야 겨우 하나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내가 가장 타 보고 싶었던 롤러코스터는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 스릴 만점이라고 했다. 그것을 직접 느껴보리라!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 우리에게 직원이 하는 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운행하기 힘들습니다.” 줄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다. 아! 이번에도 팡이구나! 우리는 너무 실망하여 더 이상 놀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았다. 마치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본 듯한 기분이었다. 다음에는 날씨가 좋은 날 사람이 적은 날 와야지! 작은 바람을 세워 본다.

잠시의 봄 소풍은 롤러코스터의 스릴을 느끼게 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봄날이 주는 평화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에 충분했다.

한국노래 사랑해!

“소원을 말해 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 봐” 나도 어느 사람들처럼 소원이 있었다. 세계를 구하겠다는 크고 위대한 포부는 아니지만 작고 소박한 꿈이었다.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중학교 때 봤던 한국 드라마 ‘폴하우스’를 보고 무작정 한국으로의 유학이었다. “그대 지금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을 말하고 있죠, 꿈이 아니기를 나는 기도해 봐요.” 이 노랫말과 주인공의 목소리는 항상 내 귓가를 맴돌았다. 엄마는 공부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 몰래 혼자 한국 노래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랑까지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유학을 허락하셨고 나는 지금 한국에 와 있다.

한국 사랑에 푹 빠진 나는 유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주최 연극대회에서 공주 역할을 맡은 경험을 계기로 한국 노래 뿐 만이 아니라 연극에도 흥미를 붙이고 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다. 고국에서 간접적으로 동경하던 한국의 노래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나는 지금 또 다른 멋진 꿈을 꾸고 있다. 어머니! 나의 꿈을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 갈게요.

황리원

컴퓨터디자인학과



왕형

국제경영학과



나도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여자로서 나는 지금까지 요리를 잘 못한다. 요리를 잘 하는 여자들을 부러워만 할 뿐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예전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해서 평소에 아빠가 대신 요리를 하신다. 아빠가 출장을 가신 어느 날 엄마도 늦게 들어오셨다. 나는 문득 “밥을 한 번 만들어 볼까?”

해서 밥을 하고 미역국을 끓였다. 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요리에 대한 상식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맛이 짜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되는데 나는 “짜니까 설탕을 넣어야지” 했다. 나에게 그 맛이 괜찮았다. 늦게 퇴근하신 어머니께 나는 자랑스럽게 나의 첫 요리를 선보였다. 엄마는 한술을 기분 좋게 드셨지만 이내 미간을 찌푸리셨다. “미역국이 며칠 된 거니? 쉬었어! 우리 밖

에 나가서 먹자” 하셨다. 순간 나는 울상을 하고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는 요리도 못하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더니.....” 엄마는 이런 나에게 “이런 맛도 날 수 있어, 잘 했다” 라고 위로를 해 주셨지만 이렇게 나의 첫 요리는 상처로 끝났다. 이후로 나는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주말에 친구들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어떤 친구는 내가 만든 볶음밥이 맛있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니가 깜짝 놀랄만한 요리를 해서 드려야겠다.

‘사바이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제 고향은 링바방이라는 곳인데 라오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오스에 대해 잘 아세요?

라오스는 계절이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보다 더 덥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는 다른 종류의 많은 나무들이 있어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과일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더운 곳에서 지내던 저에게 눈 오고 바람 부는 한국의 겨울은 너무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친절함으로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라오스 말과 문법이 너무 많이 달라서 배우기 어렵고 힘들지만 선생님들과 한국어 도우미 친구의 많은 도움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많이 배우고 체험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면 라오스 사람들에게 한국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타비사이

국비 장학생



우리의 첫 데이트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동방신기의 콘서트에 갔던 일이라고 말한다. 사진과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내가 흠모하고 좋아하던 연예인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폭우가 내렸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내렸다. 누가 이런 날씨에 일하러 가라고 하면 아마 결석을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이런 날씨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차갑고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장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영웅 재중, 시아 준수, 미키

유천이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구호 소리로 콘서트 장

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들과 같이 따라 부르는 노래 소리는 하늘까지 닿을 듯 했다. 형광펜을 흔들며 춤을 추는 팬들의 물결에 섞여 있는 우리는 마치 꿈속에 들어와 있는 듯 했다.

그들이 추는 춤은 환상이었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달콤한 꿀 같았다. 그들과 함께 즐기는 우리들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었다. 더 없을 흥분과 환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루 종일 춥고 힘들었지만 친구와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팬들을 위한 가수들의 뜨거운 열정이 고마웠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

아오자이, 베트남의 아름다움!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음식, 독특한 전통문화, 친절함 등 많이 있겠지만 전통 옷차림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아오자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오자이는 일본의 기모노 같이 입기 까다롭거나 한국의 한복같이 화려하지도 않고 중국의 치파오 같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수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베트남 말로 '긴 옷'이라는 뜻입니다. 체형에 딱 맞게 만들어 여인의 부드럽고 우아한 몸매가 드러나 섹시한 현대적인 아름다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생활 문화에 아오자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설날과 결혼식 등 특별한 행사 때에 입기도 하지만 입기 편리해서 직장이나 학교 출근할 때 입기도 합니다. 생활 복으로 널리 입히고 있어 베트남 전 지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옷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여학생들이 흰색 아오자이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여학생들의 순진함과 순수함, 그리고 어수룩한 아름다움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시인의 시를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오자이, 바람에 날려 가볍게 살랑살랑,
파리, 런던 먼 곳 어디에 있어도
길에서 만나는 아오자이를 보면 고향 생각이 절로 나네...

이처럼 아오자이는 베트남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레녹차미

국제경영학과



내 친구는 요리사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채워주는 친구. 저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리에 관심이 많고 잘 만드는 친구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이 요리를 맛있게 먹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중국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료나, 지역의 차이로 중국 현지의 맛과는 많이 다릅니다. 집이 그리울 때면 중국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내 친구는 직접 중국의 요리를 만들어 줍니다. 내 친구는 한국에 유학 온 후에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고향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리를 개발

해서 우리에게 선물하곤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에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진심과 정성,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 친구는 요리할 때 아주 진지해집니다. 그는 요리재료 선택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합니다. 재료의 신선도나 형태, 향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고릅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의 특성을 살려 요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성을 들여 만든 요리는 항상 맛있습니

다. 내 친구는 보석함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석함 안에는 요리도구와 각종 양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보석함을 볼 때마다 남자가 요리를 잘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그가 정말 요리사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의 신부는 분명 행복할 거야! 매일매일 그의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으니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나의 한국 적응기

작년 9월, “안녕하세요?” 밖에 모르던 나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도 한국 사람이 나에게 “한국어를 잘 하시네요.”라고 칭찬하면 당당하게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감에 가득 찼던 나는 큰 코 다칠 뻔했어요. 어느 날, 중국에서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는 친구랑 같이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렵게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마침 빈 자리가 있어서 빨리 앉았어요. “아싸! 운 좋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우리를 한참 동안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왜 날 쳐다보시지, 내가 귀엽고 예뻐서?” 조금 후에 할머니께서는 손짓을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그냥 바라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벽에 어떤 표시가 있었어요. 무슨 표시인지 몰랐지만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분명히 ‘노인, 장애인’ 표시였어요. 그걸 본 순간 텅기듯이 일어나는 바람에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어요. 내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 후로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노약자석’에는 절대로 앉지 않는답니다. 요즘도 가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곤 합니다.

왕곤

철도경영학과



알고보면 유익한, 알찬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함께 즐기는 행복한 우송인 Global 동호회 개설

우송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재학생, 학교 직원 교원 등 우송 가족이면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함께 어울려 활동할 수 있도록 GLOBAL 동호회를 개설하였다. 기존의 동호회를 글로벌화 한 것은 건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이다. 댄스, 통기타, 농구, 축구, 태권도 등의 음악, 체육 부문은 물론 연극, 사진, 미술, 패션, 화장법, POP손글씨 등의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함께 할 수 있다. 이 동호회를 통해 자신의 숨은 재능을 계발하고 폭넓은 교우 관계도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설된 이 GLOBAL 동호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전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우수 동호회는 문화 행사 무료 초청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유학생을 위한 외국인 취업팀 개설 운영

우송대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전문 외국인 취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팀에서는 중국 현지 기업체, 한상회 등과 협력하여 신규기업체를 발굴하여 기업체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 재학생과 미취업자들에게 진로 및 취업상담,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자에게는 정기적인 추후지도를 함으로써 우리대학 외국학생들이 졸업 후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 소개서 작성 지도 등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북경, 천진, 제남, 청도지역 기업체를 방문하여 외국인학생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취업추천 의뢰 및 유학생 해외 인턴십 업체 발굴 등 졸업생들의 취업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로 중국 롯데쇼핑 외 13개 업체에서 추천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는 중국 남경, 염성, 장가항, 소주, 무석, 상해 지역 중국기업체 및 중국한국기업체등을 방문하여 취업추천 의뢰 및 인턴십 업체를 발굴 추진 중이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우송도서관 2층 219호 외국인취업팀을 방문하거나 게시판에 취업정보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우송 서캠퍼스 우송도서관 2층 219호 외국인취업팀

중국 현지 한국어 선생님들의 이모저모

우송한국어교육원은 중국 여러 곳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 합니다. 파견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사진으로 느껴 보세요.



하북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떡을 볶는 요리인데 기름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이 매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남경 효장대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교수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 후 한자리에 모인 선생님들.



중경 사천외국어대학교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



태원 산서 화오 상무직업학교

학생들이 '패밀리가 떴다'라는 한국 오락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효리가 단호박찜을 만드는 것을 보고 선생님 숙소에서 단호박찜으로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소주대학교

학교 체육대회 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었어요.

남경특수교육직업대학

✿ 고국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 소주대학교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11명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불안함은 친절하신 한국 선생님들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좋아졌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하는 등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한 생활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 남광대학교
 선생님, 극수 언제 먹여주실 거예요? 힘들 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신 것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다 성숙한 우리들 모습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배웠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도 그렸습니다. 우리 언제 만나서 회포 좀 풀어요.



◎ 효장대학교
 저희들은 즐거운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떡볶이와 불고기, 치킨을 좋아하는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저희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은 마치 분홍색 꽃비가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무 밑에서 있는 우리들은 동화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 산둥예술대학교
 졸업한 지 벌써 1년입니다. 많이 뵙고 싶네요. 뉴욕치 않은 유학 생활이지만 밤새워 완성한 과제를 인정받을 때는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여행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처음 대학생들의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뜨거운 응원과 열기,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현장에서 한국의 힘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친절함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 베트남경제대학교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밝은 모습 보이시죠! 색다른 환경이지만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은 베트남보다 출더군요. 그렇지만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Wendy / Indah / Melyn : 인도네시아 <Petra Christian University>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한국에 온 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더 오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 Alexandra Danina / Marina : 러시아, Irina : 카자흐스탄

저는 솔브릿지와 저희 교수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배우는 것도 아주 즐겁습니다. 한국어는 아주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학기밖에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솔브릿지가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 Levina Femi/Wilson Wijaya : 인도네시아 <Binus university>

저희에게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 Aykhan : 아제르바이잔 <Azerbaijan State Economics university>

저는 고향의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일은 아주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Y AIR MAIL
 PAR AVION

선생님, 보고 싶어요~